

대학스포츠 05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소식지 | 2013. 08. 25.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 3주년 계기 주요 성과 발표

KUSF 주요 활동

대학스포츠 리그제 실상과 발전모형 연구 결과 발표
「2014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책자 제작 · 배포
대학생 참여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홍보 활동

대학축구 · 농구 · 배구리그 상반기 결산

Cover Story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대학스포츠 05 표지모델 -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5기)

대학스포츠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순수 아마추어리즘, 대학스포츠를 향한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는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입니다!

CONTENTS

Vol. 5



대학스포츠
발행일 2013년 08월 25일
발행인 장호성
발행처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TEL 02-707-3767
FAX 02-707-3766
www.kusf.or.kr



협의회 주요 활동

- 04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 3주년 계기
언론사 체육(스포츠) 부장 간담회
- 06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 3주년 업무 성과

대학리그

- 10 2013 카페베네 U리그 전반기 결산
- 14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결산
- 18 2013 삼성화재배 전국 대학배구리그 정규리그 결산

협의회 주요 활동

- 22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실상과 발전모형' 연구 결과 발표
- 24 대학생 참여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홍보 활동
- 26 KUSF와 함께하는 대학생 연합 스포츠마케팅 동아리 학술세미나
- 29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 '2013 UnivExpo 우수 프로그램팀' 선정
- 30 '2013 하계 워크숍' 실시
- 31 기자단 제4기 활동 마무리, 제5기 활동 시작
- 32 대학스포츠TV
- 34 '2014 전국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책자 제작·배포

협의회 주요 행사

- 35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 3주년 계기 체육계 원로 초청 간담회
- 36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

협의회 사무국

- 38 협의회 신규 임원 선출 외
- 39 KUSF 초대 사무국장으로 3년

협의회 주요 계획

- 40 2013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하반기 주요 계획

총장동정

- 41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지난 6월 27일 12시,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설립 3주년 계기 각 언론사 체육(스포츠) 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설립 3주년을 맞은 협의회의 그간 주요 성과와 앞으로 추진 과제에 대하여 중앙 언론사의 체육(스포츠) 부장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좋은 의견을 듣고자 개최하였으며, 협의회 장호성 회장(단국대 총장)과 강신욱 집행위원장(단국대 체육위원장) 및 집행위원과 연합뉴스 박상현 스포츠레저부장 등 20여개 언론사 체육(스포츠) 부장이 참석했다.

협의회 강신욱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는 장호성 회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강신욱 집행위원장의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 3주년 업무 성과 보고’ 발표 및 협의회와 부장단 간 질의응답, 오찬 및 간담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호성 회장은 인사 말씀에서 “우리 협의회는 중장



있도록 고건과 격려를 부탁한다”며 인사 말씀을 마쳤다.

강신욱 집행위원장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 3주년 업무 성과 보고’ 발표를 통해 2010년 6월 창립총회를 거쳐 7월 설립한 협의회가 지난 3년간 추진한 주요 업무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 3주년 계기 언론사 체육(스포츠) 부장 간담회

기적으로 대학스포츠 정상화와 활성화를 목표로 이를 위한 단기적 과제로 NCAA MANUAL과 같은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며 대학스포츠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그간 협의회가 공들여 추진해 온 주요 업무에 대해 언급했다.

장 회장은 “대학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대학 대학생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홈앤드어웨이 리그 운영,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 실시, 대학스포츠 리그 기록실 구축 등을 통해 대학스포츠 관련 정보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가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체육특기자 금전 스카우트 근절’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언급하며 “정부와 언론이 꾸준한 관심을 보인 만큼 협의회 설립 이전부터 많은 대학이 노력해왔으며, 협의회 설립 이후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동참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대학스포츠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본질을 회복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해 현재 52개 대학 총장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고 협의회 현황을 밝히며, 협의회 설립 후 추진한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대학축구·농구·배구 리그제 운영 ▲대학스포츠 제도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대학스포츠 마케팅 ▲대학스포츠TV 및 블로그 운영 ▲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분해 세부 업무 성과를 브리핑했다.

강 위원장은 “지금까지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리그제 운영과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애써왔으며, 앞으로는 이 주요 업무 외에도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국가 ‘대학 평가 기준’에 ‘대학 운동부 육성 부문’ 신규 반영 추진 ▲대학스포츠 리그제 종목 확대 ▲대학스포츠 마케팅과 홍보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고 밝혔다. 특히 “소위 ‘반값등록금’ 시대에 각 대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대학스포츠를 육성하고 있는 만큼 각 대학 체육위원장 등 체육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학 평가 기준에 대학 운동부 육성 부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조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며 거듭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협의회와 언론사 부장단 간 간담회 순서에서는 대학스포츠 현안과 협의회 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언론사 부장단은 지난 2011년 ‘언론사 체육부장 간담회’, 2012년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 성명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의회가 강조한 ‘체육특기자 금전 스카우트 근절 서약서 징구’와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 질문하며 사후 관리가 철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강 집행위원장은 각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체육특기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회가 역할을 할 것임을 다짐했다. 언론사 부장단은 또한 대학스포츠 리그제 종목을 현행 축구, 농구, 배구 외 고교 야구 주말리그가 시행되고 있는 야구와 이의 비인기 종목으로 확대해야 하며, 대학 학생선수 출신으로 활약하고 있는 프로선수를 중심으로 이벤트를 구상하

여 실시한다면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오찬과 더불어 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간담회는 중앙 언론사 체육(스포츠) 부장단에게 대학스포츠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대학스포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 특히, 20여 개 언론사 부장단이 자리해 학원스포츠의 최정점에 있는 대학스포츠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기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협의회 주요 업무와 계획을 알리고 대학스포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 3주년 업무 성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가 출범 3주년을 맞았다. 2010년 6월, 대학스포츠에 관심을 가진 여러 대학 총장들이 대학스포츠 협의체의 필요성을 공감,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그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협의회는 출범 이후 3년간 크고 작은 대학스포츠 현안을 다루며,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이루고자 앞장서왔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그간 다양한 시도를 통해 ▲대학스포츠 리그제 운영 ▲대학스포츠 제도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대학스포츠 마케팅 ▲대학스포츠TV 및 블로그 운영 ▲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그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스포츠 리그제 운영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 조기 정착 지원, 리그제 실상과 발전모형 도출



□ 대학스포츠 정상화의 기본 축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를 지원했다. KUSF는 리그의 주체자로서 리그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그간 총 98억 원의 리그 운영비를 사용하였

으며, 이 리그 운영을 통한 대학스포츠 시스템 정상화의 조기 구축을 이루고자 매진했다.

○ 지금껏 대학경기리그의 통계적 분석 자료가 없어 각 팀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 보호는 주로 경기지도자의 직감에 의존하고 있었다. KUSF는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 기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 예측과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각 팀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으로 학습 참여 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 KUSF는 대학스포츠 리그제 경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대학경기지도자 정례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워크숍부터는 쌍방향 토론에

더 비중을 두어 대학스포츠의 현안과 현장의 경험이 함께 중시되는 실질적인 워크숍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 KUSF는 올해 2월에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실상과 발전모형'을 도출했다. 대학스포츠 리그제 참여 대학의 교수, 지도자, 학생선수가 인터뷰와 설문 등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이 발전모형의 세부 전략을 리그제에 적용, 더욱 발전적인 리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대학스포츠 제도 개선

체육특기자 금전 스카우트 근절, 지원서 1인 1매 발급 관행 중단 등



□ KUSF는 2012년 5월 21일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대학스포츠 정상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개선 과제로 ▲체육특기자 금전 스카우트 근절 ▲체육특기자 지원서 1인 1매 발급 관행 중단 ▲경기지도자 처우 개선 ▲학생선수 학업 증진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마련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 개선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다.

○ KUSF는 2011년 7월 집행위원회에서 '대학 체육특기자의 금전 스카우트 근절'을 결의했으며, 이후 각 대

학 체육위원(부·실)장, 경기지도자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학 체육특기자(농구·배구) 금전 스카우트 근절 서약서 서명'을 시행했다.

○ KUSF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제도 개선 T/F'에 참여하여 '지원서 1인 1매 발급 관행 중단'을 강력히 건의했으며, 대학축구·농구·배구 리그 참여 대학에 '대입 체육특기자의 공정한 선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지원서 1인 1매 발급 관행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시상, 스포츠 취업백서 발간

□ KUSF는 “공부와 운동 병행”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학스포츠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꾸준히 힘써 왔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을 위해 ‘대학스포츠 리그제 참여 학생선수 성적표 진단·분석’을 실시했으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모범적인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와 학생선수의 전인적 발달에 공적이 큰 ‘우수 지도자’를 발굴, 시상한 바 있다. 또한, ‘스포츠 취업백서’를 발간, 학생선수의 진로·취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 지금까지 대학 학생선수 학업 성적 전수조사는 실시한 바 없었다. KUSF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2011년, 3개월에 걸쳐 대학스포츠 리그제 참여 학생선수 성적표 진단·분석

을 실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대학의 학생선수 눈높이 교과 과정 운영에 적응 반영하도록 권장했다.

○ 2011년 사상 최초로 학업성적과 경기성적 모두 우수한 학생선수에 대한 시상을 실시했으며, 2012년에는 학생선수의 전인적 발달에 공적이 큰 우수 지도자에 대한 시상도 실시함으로써 대학스포츠 정상화의 동력을 생성했다.

○ 학생선수와 스포츠전공자는 타전공자에 비하여 전공 관련 취업률이 낮은 실정이고, 비전공 분야 진로 선택 시 그 만족도가 낮았다. 학생선수와 스포츠전공자에게 다양한 진로·취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10월, ‘학생선수와 스포츠전공자를 위한 스포츠 취업백서’를 발간하고, 전국 150여 대학에 무료로 배포했다.

대학스포츠 마케팅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사업 실시



□ KUSF는 대학농구리그 마케팅을 중심으로 대학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추진했다. 2011년 3월, (주) IB스포츠와 4년간의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며, KB국민은행 등 공식 후원사를 유치했다.

○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생 참여 대학농구리그 마케팅·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한양대 4개교 대학생이 마케팅·홍보 활동에 참여해 대학농구리그 열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대학스포츠TV·블로그 운영

대학스포츠TV 개국, 대학농구리그·대학배구리그 1일 2경기 생중계

□ 대학축구·농구·배구리그를 중심으로 대학스포츠 정보를 교류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스포츠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대학스포츠TV’와 ‘대학스포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 대학스포츠TV는 2012년 4월 개국,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의 LIVE 및 VOD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를 1일 2경기씩 생중계했으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제휴하여 대학스포츠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대학스포츠 블로그는 2011년 9월 개설 이래 대학스포츠에 관한 전문적인 기사가 담긴 유일한 블로그로서 다양한 대학스포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대



학스포츠 관련 650여 개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으며, 1일 평균 1,3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5기가 활동하고 있다.

효율적 운영



□ KUSF는 대학스포츠 주요 전략과 과제에 대한 논의 및 심의를 위한 의결기구로 집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강신욱 집행위원장(단국대 체육위원장) 외 회원대학 체육위원(부·실)장, 대학경기연맹 회장, 스포츠 전문 기자 등 10인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KUSF는 올해 2월, 집행위원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자 4개 분과위원회를 발족, 운영하고 있다. 경기지원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재정·마케팅위원회, 상벌위원회의 4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대학 체육위원(부·실)장, 체육계 교수, 체육계 언론인, 법률 전문가 등 25인이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대학스포츠 관련 경기, 학사, 재정 분야 시스템 개선을 이루고자 힘을 쏟으며 더욱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출범 후 대학스포츠 주요 현안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 연구, 조정을 통해 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의회는 앞으로도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KUSF의 역량 집중

KUSF의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국가 ‘대학평가 기준’에 ‘대학 운동부 육성 부문’ 신규 반영 추진 등

□ KUSF는 “KUSF의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에 착수, 진행하고 있다. 대학스포츠의 전반적 운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규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연구책임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재욱 교수)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9월 말에 완성될 예정이다.

□ 최근 각 대학에서는 대학의 경영 합리화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기준에 맞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은 대학 운동부의 폐쇄 또는 감소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KUSF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 평가 기준’에 ‘대학 운동부 육성 부문’을 신규로 포함시켜 각 대학이 어려운 운영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스포츠와 나아가 엘리트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KUSF 현행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 운영 내실화와 더불어 이 세 종목 외 ‘대학스포

츠 리그제’ 운영이 가능한 종목을 발굴, ‘대학스포츠 리그제’ 확대를 통해 선진형 대학스포츠 조기 구축에 힘쓰고자 한다.

□ KUSF는 대학스포츠의 공익성과 아마추어리즘을 강조한 대학스포츠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종합 홍보 활동과 통합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KUSF가 주축이 되어 대학스포츠 종합 홍보 활동을 펼치고, 대학 축구·농구·배구리그 참여 70~80여 개 대학의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KUSF는 지난 2년간 시행한 바 있는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발굴·시상을 올해에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수상자의 모범사례를 대학스포츠 리그제에 참여하는 학생선수들에게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학생선수들에게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3
카페베네
U-LEAGUE

2013 U리그 경기일정 중부 I 권역

03.19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3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7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0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4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8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1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5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9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2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6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30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3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7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31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2013 U리그 경기일정 중부 II 권역

03.19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3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7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0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4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8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1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5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9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2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6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30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3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27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03.31 일 11: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15:00 서울중앙대 vs 서울과학기술대 양주시청





2013 카페베네 U리그가 전반기를 마치고 달콤한 휴식기를 맞았다. 올해는 76개 팀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4개 팀이 증가했다. 이에 챔피언십 진출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중부권 4권역 중 2권역, 영남권 2권역 중 2권역에는 각 9개 팀이 편성되고, 나머지 권역에 각 10개 팀이 구성됐다. (중부 I, 중부 II, 중부 III, 중부 IV, 호남 I, 호남 II, 영남 I, 영남 II 총 8권역으로 구성) 챔피언십에는 9개 팀이 속한 4개 권역에서 각 3개 팀이 진출하고, 10개 팀이 속한 4개 권역에서 각 4개 팀이 바로 진출한다. 그리고 9개 팀 권역 4위와 10개 팀 권역 5위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 4개 팀을 선정한다. 총 32개 팀이 챔피언십에 나선다. 그만큼 챔피언십 진출을 향한 팀 간 경쟁이 더욱 뜨겁다.

2013 카페베네 U리그 전반기 결산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다!

이 가운데 이주대, 광주대, 동의대는 무패 행진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단 1패도 없이 최상의 전력으로 상승장구했다. 상지대, 중앙대, 경기대, 남부대는 2013년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동안 리그에서 주춤하던 팀들이 200%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 대학축구를 보는 재미를 더한 셈이다. 반면, '전통 강호' 고려대와 우석대는 지난해와 달리 중하위권에 머물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렇듯 2013 카페베네 U리그 전반기는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대혼전 양상이었다.

중부 1권역 '상지대' 웃고, '고려대' 울고~

광운대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11승 1무 1패(승점 34)로 상지대, 용인대를 따돌리고 선두를 유지했다. 작년에 기록한 무패 행진은 멈췄다. 하지만 중앙수비수 김륜도를 중심으로 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 광운대 공격수 정기운은 13득점으로 리그 전반기 최다 득점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상지대의 '돌풍' 역시 최대 이슈다. 지난해 7위를 기록한 상지대가 저학년들을 주축으로 돌풍을 일으킨 것. 원톱 김종석의 활약과 함께 단 2패만 허용하며 무난히 전반기를 마쳤다. 반면, 챔피언십 직행 티켓을 두고 중앙대와 고려대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팀 모두 6승 3무 4패(승점 21)로 동률을 이뤘기 때문. 고려대의 위기 속에 중앙대가 2년 만에 챔피언십에 진출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중부 2권역 '연세대 vs 동국대', '단국대 vs 경희대' 마지막에 웃는 자는?

연세대와 동국대가 선두 경쟁에 불을 지폈다. 중부 2권역 현재 1위는 '디펜딩 챔피언' 연세대다. 9승 2무 1패(승점 29)로 동국대에 승점 3점 차로 앞서고 있다. 그러나 동국대가 한 경기 덜 치른 상태라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가운데 연세대 송수영은 13득점을 올리며 절정의 득점력을 과시했다. 동국대 안현범, 이호석 역시 각각 9골, 8골을 넣으며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한편, 단국대와 경희대가 팽팽한 3위 싸움을 펼쳤다. 단국대는 7승 1무 2패(승점 22)로 3위에 오르며 한층 더 탄탄한 전력을 드러냈다. 경희대는 연세대, 동국대 전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으로 대등한 경기를 펼친 바 있다. 더군다나 단국대, 경희대는 선두 연세대보다 두 경기나 덜 치렀다. 남은 경기서 승점을 쌓는다면 1위 탈환도 노려볼만하다. 과연 단국대, 경희대가 선두권에 오르는 반전 묘미를 선보일지 주목된다.

중부 3권역 '봄날 맞은 경기대' 3위 안착! 중위권 다툼도 치열

경기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줄곧 하위권을 맴돌던 경기대가 7승 3무 3패(승점 24)로 상위권 도약에 성공했다. 그야말로 기다리던 '봄날'이 찾아온 격이다. 최근에는 선두 건국대를 제압하는 등 6경기 무패(4승 2무)를 기록하며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이바람에 건국대는 11경기 무패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2위 관동대에 추격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숭실대는 경기대와 승점 1점 차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5위 싸움 또한 치열하다. 인천대, 충북대, 수원대가 그 주인공이다. 세 팀은 승점 1~3점 차로 '살얼음판' 승부를 펼치고 있다.

중부 4권역 '무적 아주대' 12경기 무패 질주!

아주대가 홍익대를 제치고 선두를 수성했다. 아주대가 12경기 무패(9승 3무)로 선전을 펼친 것. 무엇보다 주장이자 중앙수비수인 안세현을 중심으로 흠 없는 수비력을 자랑했다. 남은 경기 대신 역시 수월



하다. 한양대 전 고비만 잘 넘긴다면 지난해 어렵게 이루지 못한 무패 우승은 큰 문제 없어 보인다. 홍익대는 아주대에 유일한 패배를 당하며 승점 3점 차로 2위에 머물러있다. 한편 한양대와 성균관대가 3위를 두고 각축을 벌였다. 성균관대가 주춤한 사이, 한양대가 6승 4무 2패(승점 22)로 3위에 랭크됐다. 그러나 성균관대의 저력을 간과할 수 없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청주대는 신입생 김희원의 활약에 재미를 톡톡히 봤다. 김희원은 권역 내 득점 1위(12경기 10득점)를 기록하며 고군분투했다. 팀 승리를 챙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호남 1권역 '남부대'의 화려한 비성!

호남대, 전주대, 남부대가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예원예술대와 초당대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선두는 9승 3무 1패(승점 30)를 기록한 호남대다. 하지만 2위 전주대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전주대는 한 경기 뒤진 채 승점 3점 차로 맹추격 중이다. 특히 남부대의 상위권 진입이 눈에 띈다. 2011년에 출범한 남부



대가 이인규의 활약에 힘입어 8승 3무 2패(승점 27)로 단번에 선두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6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반면 예원예술대와 초당대는 나란히 승점 23점을 기록했다. 4위까지 주어지는 챔피언십 직행 티켓, 5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만 한다. 과연 어느 팀이 챔피언십에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호남 2권역 '광주대', '조선대', '동신대'의 3파전

광주대가 패조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9승 4무(승점 31)로 단 1패도 내주지 않았다.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무기로 호남권을 장악한 것이다. 광주대는 올해 제49회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리그 초반에는 기대한 승점을 확보하지 못해 고전했으나 이내 안정을 되찾으며 '신흥 강호'의 면모를 보였다. 광주대를 조선대, 동신대가 턱밑까지 따라붙었다. 조선대는 광주대에 패하며 9승 3무 1패로(승점 30) 승점 1점 차로 추격 중이다. 동신대 역시 4위 원광대와는 승점을 9점

차로 크게 벌리며 9승 1무 3패(승점 28)를 기록했다. 특히 동신대는 한층 더 강화된 전력으로 분전했다. 리그 참가 2년 만에 챔피언십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원광대, 세한대, 호원대, 우석대, 목포과학대는 승점 2~5점 차로 4,5위 경합을 벌이고 있다. 리그 끝까지 가봐야 짜릿한 결말의 주인공을 알 수 있을 듯하다. 이 가운데 우석대는 4승 3무 6패(승점 15)로 7위에 머무르며 예상치 못한 추락의 쓴맛을 봤다.

영남 1권역 '영남대' 우승 유력! '동아대', '대구대', '한남대'의 끝나지 않은 싸움

영남대의 기세가 무섭다. 11승 1패(승점 33)로 독보적인 1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2위 동아대와는 승점 6점 차. 막강한 화력을 뽐내며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총 12경기 52득점. 경기당 4.3골을 넣은 셈이다. 권역 내 득점 순위에도 영남대 선수들이 대거 올랐다. 송준호, 장순규(이하 8득점), 정대교, 정원진(이하 7득점)이 이름을 올리며 뛰어난 골 감각을 선보였다. 그리고 동아대, 대구대, 한남대가 각축을 벌



였다. 동아대 이주용은 12득점을 올리며 팀의 살림꾼 노릇을 했다. 사실상 5위 부경대와는 승점이 많이 벌어진 상황. 어느 팀이 3위까지 순위를 확정 짓고 챔피언십으로 직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영남 2권역 '동의대'와 '울산대'의 팽팽한 줄다리기

동의대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울산대전에서 3-1의 값진 승리를 거두며 선두 자리를 빼앗았다. 이로써 동의대는 12경기 무패(10승 2무) 가도를 달렸고, 울산대는 10승 2패로 2위를 기록하며 아쉬운 마무리를 지어야만 했다. 더불어 두 팀은 일찌감치 3위 안동과학대와 승점 10점 이상을 벌려놔 동의대, 울산대만의 선두 경쟁이 펼쳐졌다. 안동과학대, 인제대, 배재대, 경운대는 승점 1~3점 차로 팽팽한 3, 4위 싸움을 벌였다. 현재 1경기 덜 치른 배재대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은 둥글다'는 말이 있듯 누구도 결과를 단정 짓기 힘들다. 과연 마지막에 챔피언십 티켓을 거머쥔 팀이 누가 될지 흥미진진하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이보미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결산

‘경희대 ‘4연패’, 완벽에 날개를 달다!’

‘경희대 우승’.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에서도 ‘경희대의 진격’을 막아낸 팀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경희대가 정규리그 우승까지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마지막까지 맹렬한 추격으로 경희대의 목을 쥔 연세대와 고려대는 물론 이요, 급성장한 모습으로 어느 시즌보다도 치열한 순위경쟁을 선사한 팀도 있다. 고지 점령에 성공한 신흥 강팀이 생겨난 만큼, 지난해와는 다르게 저지대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여야 했던 팀 역시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평가 속에 막을 내린 2013 정규리그는 덕분에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이변이 속출하며 다가올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증폭시킬 수 있었다. 지난 3월 22일 경희대와 중앙대의 격돌을 신호탄으로 6월 27일 경희대와 고려대의 최종전에 이르기까지 장장 3개월여를 쉴 틈 없이 달려왔다. 플레이오프 티켓을 획득하기 위해 온 열정을 쏟아부었던 12개 대학팀. 그러나 이 티켓은 여전히 단 6장에 불과했다.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BIG 재미? BIG 3!

6장 플레이오프 티켓 6장 중 3장의 행방은 시즌 초반 일찍이 정해지는 듯했다. 지난해 경희대를 왕좌에 올린 ‘3학년 3인방’ 김민구, 김종규, 두정민이 ‘4학년 3인방’으로 돌아온 경희대와 MBC배 우승으로 경희대에 위압감을 선사한 고려대의 선전은 이미 예상된 바였다. 여기에 고

려대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매 시즌 부상선수로 고역을 치렀던 연세대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가세했다.

경희대, 3년 연속 제패하며 왕좌 굳건히!

신입생 합류로 날개를 단 연세대와 고려대에게도 아직은 무리였던 걸까. 어느덧 3연패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끊임없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돌고 돌아 경희대가 향한 종착지는 결국 ‘우승’이었다. 마지막 경기까지도 우승컵의 향방을 예측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럼에도 고려대와의 최종전, 4쿼터에 일찍이 승부를 결정지은 것은 다른 아닌 경희대의 완벽한 ‘실력’이었다. 정규리그에서 경희대의 패배는 단 한 번. 김민구, 김종규, 두정민 이 ‘경희대의 얼굴’들은 물론, 김

영현, 배수용 등 '4학년 3인방'의 빛에 다소 가려진 선수들 역시 경희대 3연패의 주역이었다.

6월 27일 고려대와의 최종전. 경희대의 매서운 칼날 앞에 고려대는 조금은 쉽게 기세가 꺾였다. 하지만 고려대의 이종현이 빠졌다는 점 때문에 최부영 감독이 정규리그 우승컵만으로 만족할 리가 없음은 자명하다. 현재 FIBA 아시아 선수권 대표팀에 선발된 대학팀 소속 선수들은 곧 복귀한다. 정규리그의 왕좌는 여전히 경희대의 차지지만,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에선 한 층 더 성장한 모습의 고려대의 문성곤과 이종현, 연세대의 최준용이 복귀해 'BIG 3'가 다시 치열한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최강 신입생 영입! 닮은 듯 다른 두 우리는 숙명의 라이벌 연세대와 고려대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의 연세대와 고려대 간 라이벌전은 접전 끝에 연세대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직 두 팀의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정규리그를 치른 결과, 연세대가 2위, 고려대가 3위를 차지하면서 고려대가 6강에서 6위 상명대를 꺾고 4강에 진출할 경우 연세대와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대학농구리그 출범 이후 꾸준히 상위권을 향해 도약했던 팀이다. 하지만 경희대와 중앙대의 기세에 단 한 번도 우승컵을 품에 안지 못했다. 그리고 드디어 2013년, 두 학교는 탈고교급으로 불리던 경북고 최준용과 이종현을 각각 영입하면서 도약에 날개를 달았다. 탄탄한 수비, 든든한 외곽, 빠른 스피드는 모두 두 팀의 특징이다. 다만 연세대는 특출한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가 있다. 기보다는 팀 전체가 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운영된다면, 고려대는 이종현과 이종현의 막강한 더블 포스트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 다르다.

올 시즌 시작은 고려대가 좋았다. MBC배 우승

을 시작으로 탄력을 받은 고려대는 조별리그로 개편된 대학농구리그 룰에 따라 B조에 편성,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왔다. 하지만 숙명의 라이벌, 연세대에 패배하며 연승행진을 저지당하고 말았다. 게다가 동국대와의 크로스매치에서 이종현마저 안와골절을 당하며 기세가 한 풀 더 꺾였다. 결국, 최종전에서 경희대를 꺾는다 해도 우승컵을 쥘 수 없었던 고려대는 3위까지 내려앉았고, 연세대를 향한 설욕전은 포스트시즌에야 치러질 전망이다.

중위권의 반란, "BIG3 순위는 우리가 결정한다"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다! 한양대

올 시즌 4위를 차지한 한양대는 이제껏 대학농구리그에서 그다지 큰 두각을 나타냈던 팀은 아니다. 꾸준히 플레이오프 진출은 해냈지만 '고춧가루 부대' 정도였을 뿐, 2%가 부족했던 탓에 최상위 팀들의 경계대상으로까지 분류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올 시즌, 한양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시즌 초반, 고려대에 패했을 뿐, 이후 한양대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A조와의 크로스매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한양대는 대학농구리그 출범 이후 꾸준히 강팀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재도를 앞세워, 지난해엔 정효근을 영입해 높이와 득점력을 높였다. 오창환과 유용진의 외곽포도 정확도를 끌어 올렸다. 이 때문에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후반, 경희대, 연세대, 고려대의 삼파전을 꺾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양대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문제는 높이. 한양대가 'BIG 3'에 비해서는 여전히 '고춧가루 부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높이였다. 그나마 신장 차가 가장 적었던 연세대와의 경기가 접전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한양대의 높이는 더욱 아쉽다. 임형종과 정효근의 더블 포스트를 지원 사격할 외곽포의 기복도 플레이오프에서의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의 한호빈, 한호빈의 건국대

올 시즌 한호빈을 빼고 건국대를 논할 수는 없다. 팀의 리딩을 보고 있는 만큼 한호빈이 주춤하면 건국대의 경기력도 함께 주춤했다. 이 때문에 건국대의 라이벌이라면 모두 한호빈을 집중 마크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상대는 대학 무대 최고의 가드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호빈. 대부분은 한호빈을 막아내지 못하고 건국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한호빈의 활약에 더불어 주장 이대혁의 복귀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이대혁의 시즌 아웃으로 당시 신입생이던 유영환이 높이의 공백을 메웠던 만큼 건국대로서는 높이에 있어서만큼은 가용자원이 훨씬 풍부해진 셈. 정규리그에서는 사실상 부상 이전의 모습을 완벽히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을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이대혁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정규리그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성공률이 떨어졌던 이도안의 외곽포도 새로운 활로를 뚫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번에 5계단 상승, '돌풍의 핵' 상명대

이상윤 신입 감독이란 모터를 달았다. 그리고 날아올랐다. 올 시즌 대학농구리그에서의 화두는 단연 상명대다. 대학농구리그에 합류한 3년간 통산 6승. 지난해 이상윤 신입 감독 체제하에서도 간신히 최하위만 면했던 상명대다. 하지만 역시 1년은 '마이다스의 손' 이상윤 감독의 진가를 발휘하기엔 다소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올해 상명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1년간 지난 3년간 기록한 6승보다 더 많은 7승을 기록했다. 어쩔 수 없는 높이의 열세는 외곽에서 해결했다. 물론 이현석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기마다 기복이 있다는 점은 다소 약점으로 꼽히지만 외곽 능력뿐 아니라 돌파 능력도 수준급이다. 비록 벤치 멤버 중 가용자원이 부족해 세트스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나, 이상윤 감독 취임 2년 만에



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쥔 만큼 높이와 경험을 앞세운 강팀들을 어떻게 상대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대, 이빨 빠진 전통강호

7위. 플레이오프 진출 첫 실패. 중앙대에는 어색하고도 다소 민망한 기록이다. 09학번의 김선형, 오세근 이후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렀던 중앙대였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팀을 이끌던 임동섭, 장재석, 정성수 등 주전이 대거 졸업한데다 올해는 높이마저 낮아 유난히 더 힘들었다. 가용할 벤치멤버조차 부족한 상황이라 체력적인 문제마저 가중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도 부상 선수들이 쏟아지면서 힘든 상황에도 리그 공동 2위에 챔피언결정전까지 진출했었다. 그러나 올해 신흥 강팀으로 떠오른 상명대와의 경기에서 큰 점수 차로 앞서다 마지막에 힘이 무너지는 등 중앙대의 모습은 예전 같지 않았다. 이호현과 전성현으로 구성된 단조로운 득점 패턴과 시즌 후반 박철호의 부상으로 인한 높이의 부재가 중앙대를 힘든 시즌으로 이끌었다. 비록 마지막까지 상명대를 향한 추격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은 끈기와 패기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지만 그뿐. 플레이오프 진출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높이 시름시름', 동국대 이대헌 진가 확인한 한해

2013 시즌 돌풍의 핵이 상명대라면 2012 시즌 돌풍의 주역은 동국대, 12학번 새내기들이었다. 석종태에 서민수와 이대헌이라는 높이를 가세하니 동국대 포스트는 그야말로 최강. 그러나 이번 시즌, 문제가 생겼다. 높이는 이미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을까. 서대성 감독은 김윤태의 공백을 메울 가드를 물색했다. 덕분에 김광철과 같은 팬층은 가드 영입에는 성공했지만 당장 경기 투입하기에는 다소 무리.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석종태와 서민수가 부상으로 시즌 내 경기 투입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새내기 모두 가드인 탓에 높이를 보완할 가용자원조차 없었다. 동국대가 여지없이 무너질 위기는 이대헌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기사화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다 할 가드의 부재로 공격 패턴은 단조로웠지만, 매 경기 30분 이상을 소화했고, 시즌 후반 집중마크가 거세졌음에도 끝 밀 혹은은 여전히 전매특허. 정규리그뿐 아니라 이상백배와 카잔 U-대회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이어간 이대헌의 진가를 제대로 확인한 것이야 말



고 동국대로선 8위라는 저조한 성적 대신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위권 진흙탕 싸움은 또 하나의 재미

2013 시즌, 상위권 'BIG 3'부터 플레이오프행을 결정짓기 위한 허리 싸움과 더불어 하위권의 진흙탕 싸움까지 어느 팀 하나 치열하지 않은 팀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시선은 상위권으로 쏠리기 마련이지만, 하위권의 접전은 언제나 도전한다는 아름다움에 그 의미가 있다.

조선대 꼴찌 탈출, 단국대-명지대 공동 9위

그런 의미에서 조선대의 '꼴찌 탈출'은 눈여겨볼 만하다. 대학농구리그 출범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최하위 12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조선대다. 그랬던 조선대가 시즌 초, 홈에서 동국대를 꺾는 기염을 토하더니 2승을 더 추가하며 한 계단 상승한 11위로 올라섰다. 한 단계 상승이지만 그 의미는 적지 않다. 한때 단국대, 명지대와 함께 공동 9위 자리도 노려봤지만, 막판 고려대, 상명대 등 다소 버거운 상대를 만나면서 좌절됐다. 하지만 다음 시즌, 김동희와 박여호수아, 신입생 이호연 간의 호흡을 좀 더 가다듬고 돌아온다면, 더 높은 순위로의 도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대의 추격을 따돌린 단국대와 명지대는 치열한 사투 끝에 사이좋게 공동 9위를 나뉘 가졌다. 단국대는 하도현 발끝이 가장 큰 성과다. 높이가 낮아 항상 제공권 싸움에서 불리했던 단국대가 '센스가 좋다'는 평을 듣는 하도현을 영입하면서 '신재호의 원맨쇼'라는 평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시즌, 과제는 남아있다. 정규리그 득점왕이자 만형 신재호의 공백을 메울 선수를 찾아야 한다. 최승민, 최승훈 쌍둥이 형제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시즌 팔꿈치 부상에서 회복할 하도현과 이 두 가드의 손발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관건이다. 명지대의 경우, 시작이 다소 좋지 못했다. 그러나 시즌 중 여러 가지

2013 삼성화재배 전국 대학배구리그 정규리그 결산

통일‘리그’시대, 첫 챔피언 타이틀은 누가?

약 3개월간 배구 코트를 달구었던 청춘 드라마의 1부가 막을 내렸다. 극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약팀이 강팀을 물리치는 이변도 벌어졌고, 부상을 딛고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팬들을 놀라게 한 감동 스토리도 있었다. 2013 삼성화재배 전국 대학배구리그는 11개 대학 배구부 학생선수들이 펼친 ‘반전 드라마’이자 ‘성장 드라마’였다.

치열한 순위권 싸움, 예선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예측불허

4월 11일 시작한 예선리그가 약 3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7월 5일 막을 내렸다.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빠르게 치러졌던 예년의 리그와는 사뭇 다른 긴 일정이었다. 그리고 오는 9월 25일에 경기대, 홍익대, 인하대, 한양대, 성균관대, 명지대(예선리그 순위 순)가 대학배구 왕좌를 놓고 본격적인 ‘가을 배구’를 치를 예정이다. 춘계·추계 ‘디펜딩 챔피언’ 경기대, 성균관대의 우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홍익대와 인하대 역시 만만치 않은 전력을 자랑하며 왕좌 탈환을 노리고 있다.

경기대 선수들은 늘 ‘전승, 전관왕’의 꿈을 안고 경기장에 나선다. 이번 시즌엔 천적 홍익대를 만나 허무하게 무패행진을 저지당했지만, 주전 선수 다섯 명이 빠진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만족할 법한 시즌이었다. 경기대에 패배를 안긴 홍익대는 사실 예선리그 중반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하지만 팀을 이끄는 ‘4학년 3인방’의篤심 있는 플레이가 빛을 발해 성균관대와 경기대를 차례로 무너트렸고 이내 2위로 우뚝 섰다.

젊은 피를 수혈한 인하대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라는 상처를 씻고 이번 시즌을 3위로 마무리해 명문 부활의 신호탄을 올렸다. 전 포지션의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며 팀 리빌딩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했다. 한양대는 주포 김명진과 김재훈이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며 팀을 이끌었다. 여기에 센터 3인방의 속공 플레이도 크게 한 몫 거들며 공격의 균형을 맞췄다. 반면 전년도 우승팀 성균관대는 전광인 등 에이스 선수들의 대표 팀 차출로 예선리그 후반 활약이 비교적 미미했다. 하지만 오는 챔피언결정전에서 지난 대회 우승 주역이 총출동해 최상의 컨디션을 선보일 예정이니 이들의 성적을 속단하긴 이르다. 마지막 6위에 이름을 올린 학교는 명지대다. 지난봄에 전패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던 명지대가 일



년 만에 환골탈태해 이번 대회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상위 6개 팀에 주어지는 챔피언결정전 진출 티켓을 두고 치열한 순위 전쟁이 벌어졌다. 일찌감치 예선 리그 1위를 확정 지은 경기대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순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배경에는 약팀의 깜짝 승리와 강팀의 충격 패배가 내재하여 있었다. 성균관대, 홍익대, 한양대가 상대적 약체로 평가 받는 팀들에 속속들이 승점을 내주었고, 지난 시즌 리그 예선 탈락 팀들이 선전을 펼쳤다.

이번 대회 복병은 명지대였다. 김민제의 뒤를 이어 새로이 '코트의 야전사령관'으로 자리매김한 정명도의 공이 컸다. 낮고 빠른 토스를 선보이며 명지대에 '빠른 배구'를 접목해 팀 컬러를 살려 나갔다. 공격수 기동균과의 호흡도 일품이었다. 지난해 가능성을 보였던 기동균은 이번 시즌 득점 부문 7위에 올랐을 정도로 주 공격수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명지대는 선수들의 선전에 힘입어 챔피언결정전 진출권을 놓고 예선리그 마지막 날까지 '2부 대학 신화창조' 경남과학기술대(이하 경남과기대)와 각축전을 벌였다. 당시 경남과기대는 최종 승점 15점을 얻어 리그를 마무리한 상황이었으나 명지대는 한 경기를 앞두고 13점을 거둬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다. 명지대가 파이널 매치에서 승점 2점 이상을 확보할 경우 세트득실에 따라 자력으로 6강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대는 전년도 우승팀 성균관대였지만 챔피언결정전을 향한 그들의 열망을 막을 순 없었다. 기동균이 23득점을 기록한 데 이어 센터 김은우까지 17득점 맹활약을 펼친 끝에 3-2승, 6강을 확정 지으며 파란을 예정했다.

반면 치열한 순위권 다툼 속에서도 '태풍의 눈'처럼 묵묵히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 학교가 있었으니, 바로 배구 명문 인하대다. 서울 남쪽에 6강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동안에도 인천에는 늘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인하대는 리그 초반 3, 4라운드까지는 9위에 머물렀지만 홍익대에 신승을 거둔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후 묵묵히 승점을 챙겨가며 리그 2위까지 도약했다. 주포 나경복이 빠진 마지막 경기에서 충남대에 패해 한 계단 내려앉았지만 이외엔 다른 이번 없이 제 페이스를 유지해 성공적으로 예선리그를 마무리했다.

승격 팀의 파란으로 진주 발견

치열한 접전 그 중심에는 리그에 처음으로 참가한 '뉴 페이스' 세 팀이 있었다. 경남과학기술대(이하 경남과기대)와 중부대, 충남대가 그 주인공이다. 이 3개 팀은 리그 참가 첫 해부터 만만치 않은 전력을 자랑하며 기존의 1부 대학 8개 팀을 긴장시켰다. 수도권 대학 선수들에 비해 높이가 낮다는 점과 리그 경험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최대 약점으로 여겨졌지만,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기존 1부 대학을 끈질기게 괴롭혔다.

































2013
SAMSUNG 삼성화재
대학배구리그

2013 삼성화재 대학배구리그 경기일정										2013. 11~12. 6일										
04.11 목 15:00	경희대 vs 조신대	경기 결과	04.12 목 15:00	경희대 vs 조신대	경기 결과	04.13 목 15:00	경희대 vs 조신대	경기 결과	04.14 목 15:00	경희대 vs 조신대	경기 결과	06.27 목 15:00	경희대 vs 조신대	경기 결과	06.28 목 15:00	경희대 vs 조신대	경기 결과	06.29 목 15:00	경희대 vs 조신대	경기 결과

04.25 ~ 04.26 일 4일 vs 5일 총경기 40회 6시간

05.25 ~ 05.26 일 4일 vs 5일 총경기 40회 6시간

06.25 ~ 06.26 일 4일 vs 5일 총경기 40회 6시간

07.25 ~ 07.26 일 4일 vs 5일 총경기 40회 6시간



한국대학교스포츠총연합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한국대학배구연맹
Korea University Volleyball Federation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특히 경남과기대가 리그 초반 보여준 눈부신 활약은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용동국에서 정영호로 이어지는 주포 라인은 나란히 개인 득점 2, 3위에 랭크되며 위용을 떨쳤다. 리베로 정민수도 디그와 리시브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완벽한 수비를 선보였다. 아쉽게 세트 득실에 밀려 명지대에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양보해야 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플레이는 많은 팬들을 열광케 했다.

충부대 역시 리그 중반에 접어들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리그 초반 약팀에게 승점을 내주는 아픔이 반복되었지만 이내 파죽지세로 '강팀 파수꾼'으로 거듭났다. 두터운 선수층을 기반으로 우승 후보 홍익대에 승리를 거두더니 한양대, 경희대에도 패배를 안겼다. 그 중심에는 주포 지원우가 있었다. 리그 시작에 앞서 충부대 송낙훈 감독이 '가장 주목할만한 선수'로 언급한 바 있는 지원우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으로 개인 득점 부문 1위를 기록해 그 기대에 부응하기도 했다.

앞선 두 팀의 선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충남대 역시 처음 치르는 리그에 성실하게 임했다. 충남대는 특유의 순발력을 살려 조선대와 충부대에 승리를 거두는 것은 물론 인하대에도 완승을 거둬 가능성을 입증했다.

프로무대 '식발 열풍' 대학무대로 이어져

'2012-2013 NH농협 V리그'에서 II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등 많은 팀의 선수들이 머리를 밀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머리를 밀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잡곤 했다. 엄동설한 겨울에 시작된 이 열풍은 대학배구리그가 개막한 4월이 되어서도 식지 않았다. 리그를 치르는 학생선수들도 성적이 좋지 않을 때마다 기꺼이 머리를 깎았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팀은 한양대였다. 주장 김재훈이 마음을 다잡고자 홀로 미용실에 다녀왔다. 후배들도 뒤따라 까까머리를 하고 나타났다. 정신을 새로 무장하고 코트 위에 섰다. '식발의 힘'인지 영원한 라이벌 성균관대와 치르는 '한성전'에서 폴세트

접전 끝에 3-2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한양대와 경기를 치른 성균관대에 ‘성한전’은 뼈아픈 패배로 기억된다. 번번이 눈앞에서 득점 기회를 놓치며 근소한 차로 승리를 내주어야 했기 때문. 선수들은 설욕을 다짐하며 미용실로 직행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느껴지는 짧은 머리카락이 선수들을 각성케 했다. 부진했던 플레이에 대한 반성도 뒤따랐다. 박종찬 감독은 선수들에게 수비 조직력 구축과 자신감 회복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그리고 선수들은 이 지시에 따라 다음 경기를 준비했다. 이후 충남대, 조선대, 경희대에 차례대로 연승을 거둬 포스트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다음 타자는 홍익대였다. 4연패 수렁에 빠진 선수들에게 신진식 감독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머리를 밀면 배구를 잘할 수 있다.” 듣는 선수들 입장에선 황당할 법한 말이었지만 단기간에 집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깊은 뜻이 숨어있었다. 실제로 선수들에게 ‘갈색 매직’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다. 머리를 새로 하고 치른 첫 경기인 성균관대전에서 3-1 승리를 거두더니 경남과 기대와 경기대, 조선대에 연달아 승점 3점을 얻어 리그 2위로 우뚝 서는 기염을 토했다. 예선 탈락 위기에서 준결승 직행 티켓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머리카락과 승리를 맞바꾼 셈이다.

대학배구 지각 변동의 시작, 응답하라 2013

이번 한 해 13학번 새내기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슈퍼루키 인하대 나경복을 필두로 경기대 정동근과 한양대 백계중 등이 입학과 동시에 놀라운 기량을 선보이며 형들의 자리를 위협했다. 팀 성적은 다소 아쉽지만 2인 세트 체제의 시작을 알린 경희대 추도빈과 이희윤, 조선대 거물 세터 김종덕 역시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선보이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2013 삼성화재배 전국 대학배구리그는 새내기들의 선전과 2부 대학의 돌풍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들로 가득했다. 팀별 전력의 굳어져 있던 대학배구에 긴장감을 감돌게 한 새로운 스타들은 마른 땅에 단비 같은 존재였다. 이와 동시에 경기장 한 편에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홍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각 대학의 학생회와 스포츠마케팅 팀은 관중 유치에 발 벗고 나서 자교 학생선수들에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학생 전체가 즐기는 캠퍼스 주류(主流) 문화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상반기 코트를 뜨겁게 달군 그들의 열정이 오는 가을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더불어 인상적인 경기력과 치밀한 마케팅 전략으로 대학스포츠가 대학가에서 흥행가도를 달릴 수 있기를 바란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정유리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실상과 발전모형’ 연구 결과 발표

우리나라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 학원스포츠 선진화 조기 정착을 이루고자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아래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있는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축구, 농구, 배구의 3종목에서 시행되고 있는 리그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경기력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는 ‘대학이 바뀌면 초·중·고등학교가 제도적 틀에서 변화할 것이며, 결국 한국 학원엘리트스포츠가 정향할 것’이라는 협의회의 철학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리그제 도입이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리그제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리그제의 도입 취지와 정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다.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실상과 발전모형’ 결과는?

이에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리그제 시행 3년 차 시점(대학축구리그, 대학농구리그는 2010년 도입, 대학배구리그는 2011년 도입)에서 현행 리그제 운영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8월,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 운영 분석 및 개선·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공모해 경북대학교 스포츠사회학연구소(연구책임자: 경북대 체육교육과 임수원 교수)이 맡아 연구를 수행했다. 경북대 연구진은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실상과 발전모형’이라는 주제로 ▲리그제 환경 분석 ▲리그제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리그제 개선방안 및 급후과제 ▲리그제 발전모형을 주요 내용으로 6개월간 연구를 진행했으며, 올해 2월 중순,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스포츠 리그제 환경 분석

경북대 연구진은 우선 대학스포츠 리그제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한 SWOT 분석을 실시했다. 내부환경 강점으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라는 전담 기구 발족’, ‘대학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등을 꼽았고, 약점으로는 ‘리그제 운영에 따른 재정확보 불안’, ‘리그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꼽았다. 외부환경 기회로는 ‘초·중·고 주말리그제 확대 실시’, ‘초·중·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을, 위협으로는 ‘프로스포츠로의 관중 집중’ 등을 꼽았다.

대학스포츠 리그제 운영 실태

대학스포츠 리그제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대학축구·농구·배구 리그제 참여 학생선수

중 전국 13개 대학의 학생선수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학스포츠 리그제 측면적 평가를 위해 ▲학생선수 학업 ▲학생선수 경기력 ▲리그제 운영 실태 및 현황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시스템 인식 등 4가지 범주의 99개 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분석했다.

학생선수 학업에 대한 조사 결과, 학생선수는 학업 관심도와 학업 성취도는 높은 편이나, 학업 이해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선수는 수업에 관심이 많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학점 관리도 신경 쓰지만,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생선수 학업에 대한 관심과 성취도는?

나는 학교 수업에 관심이 많다.	89.0%(긍정+보통)
나는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	90.3%(긍정+보통)
나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50.9%(긍정+보통)

학생선수의 경기력과 관련, 학생선수의 운동부 생활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응답 결과, 대다수의 학생선수는 수업을 마친 후 훈련에 참가하고 있었고, 1일 평균 2시간 이상 정규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선수가 운동부 합숙소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한편, 약 35%의 학생선수가 운동부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진로 문제를 꼽았다.

리그제 운영 실태 및 현황과 관련, 학생선수는 리그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생선수 중 약 80%가 ‘리그제는 대학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약 90%가 ‘리그제는 개인 및 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리그제로 인해 대학 생활이 더 힘들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보다 약 20% 정도 많았다. 즉, 학생선수는 리그제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며 리그제를 경험한 적이 없기에 리그제라는 시스템 적응을 위해 애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운동부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선후배와의 관계	8,2%
지도자와의 관계	9,2%
개인 기량	19,4%
진로 문제	34,8%
금전 문제	8,2%
부상 및 재활	15,7%
기타	4,5%

대학리그제 운영에 대한 생각은?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실시를 찬성한다.	82,5%(긍정+보통)
대학스포츠 리그제는 대학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된다.	89,3%(긍정+보통)
대학스포츠 리그제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경기 방식이다.	71,1%(긍정+보통)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시스템 인식에 대해 학생선수의 약 90%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시스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약 95%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시스템 인식

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시스템에 찬성한다.	88,6%(긍정+보통)
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96,0%(긍정+보통)

대학스포츠 리그제 개선방안 및 금후과제

대학스포츠 리그제의 개선방안 및 금후과제 도출을 위해 IPA 분석과 델파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

대학스포츠 리그제 일정 조정 ▲대학스포츠 리그제 경기를 위한 시설 구축 ▲대학스포츠 봄 조성을 위한 마케팅·홍보 활동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스포츠 봄 조성을 위한 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학생선수 스타 마케팅, 학생선수와 멘토링 시스템 구축, 유소년 팀 및 동아리 팀과의 연계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스포츠 리그제 발전모형

경북대 연구진은 위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한 대학스포츠 리그제 개선방안 및 금후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스포츠 리그제 발전모형을 제시했다. 이 발전모형은 크게 ▲대학스포츠 정상화 전략: 바람직한 학생선수상 정립 - 대학스포츠 리그제 규정 확립, 대학스포츠 리그제 전담 행정기구 설립, 학생선수 튜터링 제도, 학생선수 맞춤형 교육, 바람직한 학생선수상에 대한 포상 등 ▲대학스포츠 리그제 활성화 전략 - 대학스포츠 리그제 브랜드화, 대학스포츠 리그제 일정 조정, 대학스포츠 리그제 경기장 시설 기준 설정 등 ▲대학스포츠 재정자립도 구축 전략 - 대학스포츠 리그제 공식 타이틀 스폰서 유치, 대학스포츠 머천다이즈 등의 차원에서 제시했으며, “이 업무를 협의회가 관장하여 바람직한 대교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감독해야 함”을 명시했다.



대학생 참여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홍보 활동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지난 3월 22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경희대와 중앙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한 정규리그는 6월 27일 막을 내렸다. 올 시즌 정규리그의 선두 다툼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디펜딩챔피언 경희대와 대학농구의 전통 강호이자 영원한 라이벌, 고려대와 연세대의 치열한 3파전 끝에 경희대가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며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3연패를 이뤘다. 정규리그 시작 전부터 우승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의 삼파전 양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한양대와 건국대의 약진이 돋보였다. 파란도 있었다. 대학농구리그 출범 이후 늘 하위권 한 자리를 맴돌던 상명대가 지난 2년간 대학농구리그에 참여하며 거둔 총 승수보다 더 많은 승수를 거두며 당당히 6강 플레이오프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처럼 3달여 기간 이어진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는 코트 안에서 학생선수들의 열정이 두드러진 시즌이었다. 마지막 경기까지 선두를 알 수 없었던 일정, 드래프트 1순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희대 3인방 김민구, 김종규, 두경민의 활약, 고려대 괴물 신인 이종현의 등장 등 흥행요소가 무궁무진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러한 흥행요소를 살리기 위해 코트 밖에서 학생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바로 대학생들이 참여한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홍보 열전’이었다.

‘사자더비’, 대학생 참여 마케팅 홍보에 불지피다

2012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한양대와 경희대의 경기가 펼쳐진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 대학농구리그 출범 이래 최

대 관중이 몰렸다. 양교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라는 점에 착안, ‘사자더비’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경기에는 약 2,000여 명의 구름 관중이 몰렸다. 텅 빈 관중석을 채우기 위해 열정적으로 마케팅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였다. 이 이벤트를 기획한 주체는 다름 아닌 대학생과 대학원생. 한양대 글로벌스포츠 산업학과 대학원생과 스포츠산업학과 대학생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이벤트 기획회의를 거쳐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한양대 출신 스포츠스타의 응원 메시지를 받아 대형 강의실에서 상영하는 등 관중 유치에 힘쓰고, 당일 경기장을 찾은 관중을 위한 공연, 이벤트, 경품을 준비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였다. 비록 ‘전에 없이 관중이 몰린 탓’에 무선인터넷에 과부하가 걸려 전광판 고장으로 아쉽게도 경기가 도중에 취소되었지만, 이날 한양대 대학원생과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프로 못지않은 마케팅 홍보 활동을 펼친 점은 두고 두고 회자할만한 이슈로 남았다.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한양대 대학농구리그 대학생 참여 열기 후끈

결국, 이 ‘사자더비’가 대학농구리그 대학생 참여 마케팅 홍보 활동에 불씨를 지폈다. 대학농구리그를 주최하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관하는 대학농구연맹, 그리고 마케팅대행사 IB스포츠는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시즌 개막을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대학농구리그 대학생 참여 마케팅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학농구리그에 참여하는 12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농구리그 홈경기 마케팅 홍보 활동’에 참여할 대학(원)생





을 모집했다.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한양대 총 4개 대학이 참가신청서를 보내움에 따라 이 4개 대학에 활동 지원금을 지급했다. 4개 대학 대학생들은 대학농구리그 홈경기마다 다양한 마케팅 홍보 활동을 펼쳤다. 대학생 이용률이 높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활동은 물론이고, 자체 포스터와 현수막 제작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재학생에게 대학농구리그 홈경기가 있음을 알렸다. 또한, 경기장을 찾은 관중을 대상으로 응원 막대를 제공해 응원을 유도하고, 장내 아나운서 등을 활용하여 분위기를 돋우었다. 또한, 학생선수 유니폼, 사인볼 등 기념품과 후원사로부터 협찬받은 물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대학농구리그 경기장을 찾는 재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매 경기 관중석을 꽉 채우는 수준은 아니어도 매 경기 거의 텅 비어 있던 관중석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 활동 시작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장내 아나운서와 마스코트 등을 도입, 대학농구리그 홈경기 분위기 구성에 앞장선 바 있던 연세대의 경우, 'PLAN-B'라는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홍보 기획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마케팅 홍보 활동을 벌인 올해 홈경기장을 찾는 고정관중이 200~4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배 넘게 늘었다. '사자더비'의 주인공 한양대도 올해 중점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 2경기에 총 3,00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대학농구리그의 현재를 바라보다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한양대 총 4개 대학 대학생들은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 종료 후 7월 8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사무국에서 최종 보고회를 갖고, 올해 활동 내용과 활동 성과 그리고 앞으로 대학농구리그 학생 참여 마

케팅 홍보 활동에 대한 제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4개 대학 대학생들은 1학기 동안 대학농구리그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 대학농구리그가 대학 문화로 성장하기 위한 애정 어린 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고려대학교 SPORTS KU는 "기성세대는 소위 90년대 중후반 농구대란치 시절의 대학농구 전성기를 추억하지만,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 그 시절 추억이 없다. 과거 대학농구에 대한 향수보다 현재 대학농구에 대한 매력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본다."며 대학생의 시선으로 대학농구리그를 바라봐야 함을 강조했다. 단국대학교 DKBM은 "대학농구리그 참가 대학, 주최자, 주관자 등 관련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대학생 참여 마케팅 홍보 활동을 위한 회칙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대학농구리그 관련 단체 간 유기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들의 리그’로

2010년 대학농구리그 출범 이후 어느덧 4년 차. 그동안 대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던 대학농구리그. 이제 대학생들이 하나둘씩 참여하기 시작했다. ‘대학농구리그 홈경기 마케팅 홍보 활동’에 참가해 활동한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한양대 4개 대학과 더불어 이 활동에 참가해 활동하진 않았지만, 농구에 대한 특유의 열정으로 홈경기 때마다 관중석을 꽉 채운 상명대까지. ‘그들만의 리그’가 ‘우리들의 리그’로 조금씩 그 모습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대학농구리그의 제2의 전성기 도래가 머지않았다.

- | | | | |
|---|---|---|-------|
| ① | ② | ③ | ① 고려대 |
| | | | ② 단국대 |
| | | | ③ 연세대 |
| | | ④ | ④ 한양대 |

KUSF와 함께하는 대학생 연합 스포츠마케팅 동아리 학술세미나



‘제3회 SmarteR 학술세미나, 대학스포츠 리그 관람 활성화 방안’

2013년 7월 21일 오후 2시 서강대에서 ‘한국대학 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와 함께하는 제3회 스마트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KUSF의 김정현, 정세봄 마케팅 담당자, 경쟁 PT에 참가하는 네 학교의 스포츠마케팅 동아리 부원들, 스포츠마케팅과 대학스포츠를 사랑하는 대학생들이 모두 모였다.

오후 2시,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대학생 연합 스포츠마케팅 동아리 스마트(SmarteR) 최승태 회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주제 및 동아리 소개, KUSF 사무국 김정현 마케팅 담당자의 강연, 경쟁 PT, 스폰서 타임에 이은 심사평과 시상식을 끝으로 네 시간에 걸친 열띤 세미나는 막을 내렸다.

특히, 3회째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대학스포츠 리그 관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돼, 어느 때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대학스포츠 리그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최승태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이전과는 달리 주제 자체가 직접 대학스포츠와 관련되어 우리 대학생들과 밀접한 주제기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여주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경쟁 PT에 앞서 KUSF 김정현 마케팅 담당자는

미국대학스포츠협회(이하 NCAA)의 사례와 함께 KUSF의 현황과 활동에 대해 설명했고 스포츠마케팅 학술세미나인 만큼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KUSF의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도 강연했다. NCAA가 말하는 ‘Under Construction’ 정신처럼 현재 우리나라 대학스포츠 역시 만들어나가고, 성장해나가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불꽃 튀는 경쟁 PT

‘대학스포츠 리그 대학생 팬 유치방안’

이날 ‘대학스포츠 리그 대학생 팬 유치 방안’을 주제로 경쟁PT에 참여한 발표자와 이 경쟁PT를 지켜본 참가자는 그야말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무장했다. 경쟁PT에 참여한 팀은 총 네 팀으로 추첨에 따라 2순서를 정해 발표를 진행했다. 경동대학교 스포츠마케팅 학술연구회 스마팅이 첫 주자로 나섰으며, 이어서 대학생 연합 스포츠마케팅 동아리 SmarteR, 한양대학교 스포츠학술 동아리 ROOTS, 단국대학교 스포츠마케팅 동아리 단스마가 발표를 진행했다. 네 팀 모두 주어진 25분 동안 톡톡 튀는 방안을 나뉘며 제시하며 ‘대학스포츠 리그 대학생 팬 유치 방안’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보여주었고, 대학생의 창의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이라는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 스포츠 학술동아리 ROOTS가 경쟁PT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경동대 스마팅

경동대 스마팅은 2000년 5월, 스포츠마케팅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시작되어 현재 14기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스터디, 토론, 세미나와 더불어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에 스태프로 참여하고 있다. 스마팅은 'US CULTURE'라는 그들만의 키워드를 내세웠다. 'US CULTURE'란, 직역하면 '우리 문화'인 동시에 'University Sports Culture 즉 대학스포츠 문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우리 문화를 대학스포츠 문화'로 바꾸어 나가자는 취지였다. 스마팅은 또 SWOT 분석을 통해 현재 대학스포츠 리그의 문제점은 대학생들의 인지가 부족한 점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대학 내적으로는 화장실마케팅을 펼쳐 화장실에 대학스포츠 리그 일정이나 정보에 대한 스티커를 붙여 대학생들의 주목을 우선적으로 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관련 정보를 노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중교통에 대학스포츠 리그에 관련한 배너를 부착하고 각 대학의 브랜드를 상품화하여 머천다이즈 상품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제시했다. 대학 외적으로는 KUSF와 연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스포츠와 관련된 공모전을 개최해 당선자에게는 취업 관련 혜택을 주는 등 피부로 와 닿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대학생들의 주목을 끄는 핫케스트를 통해 대학스포츠 리그에 관한 콘텐츠를 많이 쌓아가고, '1인 1,000원 문화'를 통해 대학스포츠 리그 관람으로 1,000원이 적립되어 기부되는 공익연계 마케팅 등의 참신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학생 연합 Smarter

대학생 연합 Smarter는 2011년 창립하여 현재 6기가 활동하고 있고, 스터디, 특강, 다양한 대외활동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Smarter는 '대학생, 선수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Smarter는 주타켓을 스포츠를 사랑하는 대학생으로 정했고, 친구가 학생선수로 활약하고 있다면, 친구이기에 동질감을 느끼면서 대학스포츠 리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는 만남, 친해지기, 커가는 우정 3단계를 제시했다. 1단계 만남의 경우, 현재 KUSF의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활용해 대중교통의 영상 광고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단계 친해지기에서는 대학스포츠리그의 이해라는 교양수업을 개설하여 리그 현황 소개, 리그 경기 영상 시청 및 관람, 학생선수와의 대화 등의 커리큘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3단계 커가는 우정으로 USB(University Sports Buddy)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기존의 단방향적인 멘토링과는 달리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서로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학생선수는 일반학생에게 운동을 알려주고, 일반학생은 학생선수에게 영어나 컴퓨터 등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Smarter는 학생선수와 일반학생 간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방안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한양대 ROOTS

한양대 ROOTS는 2007년에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설립과 동시에 구성된 단체이다. 대학스포츠 경기 프로모션과 토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화, 자유, 근원이라는 3가지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번 경쟁PT 발표자 역시 1학년 학생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했다. 한양대 ROOTS의 경우, 대학농구리그 홈경기과 관련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00여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재학생들을 체육관으로 끌어모았던 적이 있다. 이때 학내 언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반년 후, 홈경기의 모습은 제자리였다. 선수 가족들과 일부 체육계열 학생들만이 홈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ROOTS는 자신들의 프로모션을 실패로 받아들였다. 실패의 원인은 일회성 홍보는 일회성 효과만을 가져온다는 점, 대학생은 합리적이기에 일회성 미끼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대학생은 사교 지향적인데 네트워크 활용이 부족했다는 점으로 분석했다. 이런 분석에 따라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명예의 전당'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동상, 트로피, 배너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애교심을 높여 대학스포츠 리그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두 번째는 'Project KAPAS(KUSF's Attendance Point Accumulation System)'. 이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는 많은 학생들이 발표에 집중하며 이 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Project KAPAS는 미시간대학의 H.A.I.L(Honoring Attendance, Involvement & Loyalty)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H.A.I.L은 모바일 어플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홈경기





20분 전에 체크인을 하면 기준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받고 이 포인트로 연말에는 현금, 스포츠 용품, 스포츠 경기 시즌권, 학내 식당 할인권 등 다양한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KAPAS도 KUSF 차원에서 시행해 학생들의 대학스포츠 리그 참여에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하여 열람실 이용 우선권 등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주는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SNS 특성이 크기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끼리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쉽게 경기 일정이나 경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어플을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친구를 찾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국대 단스마

마지막으로 단국대 단스마는 2002년에 출발해 실무자 강연, PT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1회 스마트 학술세미나 경쟁PT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재치 있고 친근한 발표자 덕분에 마지막이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단스마는 20대의 특성을 살려 ‘문화 창조, 강의 개설’이란 핵심 방안을 발표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봉다리 응원 문화를 예로 들어 각 대학도 고유한 색을 입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만의 마스크 코트, 응원가, 라이벌 등을 만들어야 하며 일반학생들도 홈경기 때 드레스 코드를 정하여 대학스포츠

리그만의 문화를 창조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해 꾸준히 유지시켜야한다고 했다. 또한, ‘대학스포츠 리그 탐방’이라는 교양과목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단국대의 ‘천안학’이라는 교양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큰 부담 없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천안에 대한 애정을 느끼는 것처럼 대학스포츠 리그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교양과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스포츠 리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홈경기 관중은 더욱 증가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사랑하는 대학생들 간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학스포츠 리그 팬 확보, 가능성을 보다.

조금 겹치는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네 팀 모두 다양한 관점에서 대학스포츠의 팬을 확보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각 팀의 발표가 끝나면 다른 동아리 부원뿐 아니라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발표자들은 뚜렷한 주관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경쟁PT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양대 ROOTS의 함찬식 회장은 “우승을 할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우승을 하게 되어 기쁘다. 마지막에 강조했듯이 대학스포츠 리그 대학생 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각 주체 간 협력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학생들뿐 아니라 서로의 협력이 단추가 되어 대학스포츠 리그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좋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고 많이 배워간다.”고 전했다. 주관 동아리인 스마트의 최승태 회장도 “이런 자리가 계속되어 대학스포츠에 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 느끼고 행동하라.’

우리는 대학스포츠에 대한 오늘의 이 뜨거운 열기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보았다.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만든 방안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스포츠 리그의 팬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이다. 협의회, 학교, 학생 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이 방안이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꼭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김예슬
사진.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임예람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2013 UnivExpo 우수 프로그램팀’ 선정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니브엑스포(UnivExpo)’에 참가해 전국 각지에서 유니브엑스포에 참가한 대학생에게 대학스포츠와 대학스포츠 블로그 홍보에 앞장섰다.

유니브엑스포는 대학생 진로, 동아리, 대외활동 등 대학생 관련 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학 박람회로 지난 2010년 제1회 유니브엑스포 개최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화여대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고 2013 유니브엑스포 서울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총 120여 개의 대학생 동아리·국가기관·NGO·기업이 참여해 대학생 참여 대외활동 홍보, 강연, 공연, 이벤트 등의 행사가 다양하게 열렸다.

2013년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2013 유니브엑스포 서울’에는 양일 2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협회회의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은 문화A존 11번 부스를 배정받아 유니브엑스포를 찾은 대학생들을 만났다.

‘2012 유니브엑스포 서울’에 참가한 바 있는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해의 참가 경

험을 살려 행사를 기획했으며, 제3기에 이어 제4기 기자단으로 활동한 정유리 학생기자(홍익대 법학)가 학생대표를 맡아 기자단을 이끌었다. 기자단은 ‘KUSF’ BI가 새겨진 대형 현수막을 배경으로 대학 축구·농구·배구리그 공식 포스터와 사진, 대학스포츠 블로그 기사 스크랩북을 전시해 부스를 꾸몄다. 또한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대학축구·농구·배구리그 퀴즈’와 ‘대학스포츠 운동부 유니폼 체험 이벤트’를 진행해 인기몰이를 했다. 특히 올해 처음 진행한 ‘대학축구·농구·배구리그 우승팀 맞추기 이벤트’의 반응이 좋았다. 전국 각지에서 유니



브엑스포를 찾은 대학생들은 ‘모교’와 ‘응원교’의 선전을 기원하며 이벤트 응모 용지에 정성스레 ‘예상 우승팀’을 작성했다.

‘축제의 계절 5월’에 싱그러운 캠퍼스에서 2만여 명의 열정적인 대학생과 함께한 유니브엑스포는 양일간 젊음의 열기를 무한대로 뿜어내고 그 막을 내렸다. 올해로 두 번째 참가한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은 ‘2013 UnivExpo 우수 프로그램 팀’으로 선정되었다. 학생대표 정유리 학생기자를 필두로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5기 학생기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적으로 참가한 덕분에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정유리 학생기자는 “대학생활을 돌이켜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KUSF가 대학생들에게 더욱 친근히 다가갈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2013 하계 워크숍’ 실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3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오션스카이펜션에서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2013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기자단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4기와 제5기 학생기자와 협의회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워크숍 장소인 오션스카이펜션에 도착한 기자단은 해양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직접 준비한 바비큐 파티 후 저녁

시간에는 대학생이 바라보는 대학스포츠에 대한 현안과 더불어 대학스포츠와 대학스포츠 블로그 활성화 아이디어를 주제로 열린 자유 토론을 벌였다. 전국 각지에서 ‘대학스포츠’라는 공통 관심사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기자단답게 평소 대학스포츠에 관해 고민했던 생각을 가감 없이 밝혔다. 대학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스포츠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학창시절 야구부에서 활동하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우기도 했다는 제5기 나원건 학생기자는 “대학스포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연, 지연, 파벌에 상관없이 땀 흘린 학생선수가 땀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스포츠가 투명해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육상 체육 특기자 출신이기도 한 제4기 이병진 학생기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기가 중요하다. 육상을 예로 들면, 기초종목인 육상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기본기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블로그를 통해 기초종목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유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SNS 활용이 활발한 대학생답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이벤트 등을 통해 일반 대학생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며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1년 8월 제1기 기자단 출범 이래 2013년 7월 현재 제5기 기자단이 활동하는 가운데 처음 개최된 이번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2013 하계 워크숍은 기자단 간 팀워크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제4기 활동이 마무리되고 제5기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4기와 제5기가 어우러져 기자단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기자단으로서의 활동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 김민희 담당자는 “대학스포츠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대학생 기자단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기수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생 기자단 간 교류의 장을 활짝 열어 대학생 기자단의 내실을 다지고 우리 대학생 기자단이 대학스포츠와 대학생 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4기의 수료식이 7월 9일 사무국에서 열렸다. 제4기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대학스포츠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데 힘썼다.

제4기 우수 기자로는 ‘2013 UnivExpo’에서 우리 기자단 학생대표로 활약하며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이 ‘2013 UnivExpo 우수 프로그램 팀’으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정유리 학생기자(홍익대 법학)와 대학농구리그 현장을 누비며 매 경기 꿈꿨던 현장 소식을 전한 이해은 학생기자(동국대 신문방송학), 부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며 영남권 대학스포츠 소식을 전담한 권수정 학생기자(경성대 광고홍보학)가 선발되었다.

지난 7월, 약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5기는 7월 11일, 발대식 겸 1차 기획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워크숍을 계기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5기를 소개합니다!



기자단 제4기 활동 마무리, 제5기 활동 시작

대학스포츠TV



지난해 4월 ‘대학스포츠TV’가 개국했다. 그간 언론의 대학스포츠 관련 보도가 미흡하고,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대학생층에게 제공되는 대학스포츠 관련 인터넷 콘텐츠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고 대학스포츠의 고유한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기획된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국 ‘대학스포츠TV’는 개국 첫째 대학스포츠TV 홈페이지 구축,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 총 44경기, MBC배 대학농구대회 19경기 등 대학스포츠 LIVE 및 VOD 서비스를 시행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대학스포츠TV’ 개국 1년 후, 2013년 4월, ‘대학스포츠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다. 지난해가 ‘대학스포츠TV 개국 첫째’였다면 올해는 ‘대학스포츠TV 활성화 첫째’로 삼고 대학스포츠TV를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힘

썼다. 2013년, 달라진 ‘대학스포츠TV’를 소개한다.

다채널 서비스 실시

지난해 대학스포츠TV는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를 각각 34경기, 10경기 중계했다. 지난해 대학농구리그가 총 142경기, 대학배구리그가 총 68경기 치러진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국 개국 초기 단계에 콘텐츠의 안정적 수급과 관리를 위한 대학스포츠TV 자체 서버와 홈페이지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구축이 완료된 이후 1일 1경기 중계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농구는 1일 2경기, 배구는 1일 4경기씩 치러지는 상황에서 시청자는 1일 1경기만 시청할 수 있었다. 이 점을 보완해 올해는 1일 최소 2경기에서 최대 4경기 동시 중계가



가능하도록 촬영팀을 구성했다. 농구와 배구 모두 최소 1일 2경기씩 중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 정규리그가 끝난 현재 농구 75경기, 배구 43경기 중계가 이루어졌다.

콘텐츠 구성 업그레이드

대학스포츠TV 다채널 서비스 실시와 더불어 콘텐츠 구성도 업그레이드되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 경기 HD 카메라 3대 이상을 투입하여 고품질 영상을 제공함과 동시에 올해에는 오프닝과 클로징 영상, 하프타임 하이라이트 영상, 자막과 리플레이 등을 추가하여 고품질 영상 서비스를 실현했다. 대학농구리그의 경우, 경기 명장면 리플레이 시 리그 공식 엠블럼을 사용하여 후원사 로고가 노출되도록 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제휴

올해부터 대학스포츠TV를 통해 생중계된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송출됐다. 지난 4월 시범송출을 거쳐 5월부터 정식송출이 진행되었으며, 중계 시 네이버 스포츠 농구·배구 섹션에 메인 노출이 이루어져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 홍보에 힘을 보탰다. 실제로 지난 4월 15일 네이버를 통해 송출된 경희대와 연세대의 대학농구리그 경기는 6,000명이 넘는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대학스포츠TV 최고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15일 경희대와 중앙대의 대학농구리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의 시청자 수보다 4배나 큰 수치이다.

대학생 참여 기회 확대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

대학스포츠TV는 대학스포츠 리그의 공익적 가



치를 공유하고 정상화와 활성화를 알리고자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 주간 소식,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 참여 대학, 학생선수 소개 등을 담은 대학스포츠TV 스페셜 프로그램 ‘Weekly Sports’를 제작했다. 또한, 대학생의 대학스포츠TV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4기로 활약하며 대학농구리그 경기 분석에 탁월한 감각을 보인 이혜은 학생기자(동국대 신문방송학)을 선정, 내레이션을 맡기고 ‘Weekly Sports’ 제작에 참여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대학스포츠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 제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스포츠 기자, 아나운서, PD 등 관련 분야 진로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인터넷 방송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책자 제작 · 배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4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책자를 발간, 전국에 운동부를 육성하는 모든 고등학교에 배부하였다. 지난해에도 ‘2013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책자를 발간, 336개 고등학교에 무료로 배부한 바 있는 협의회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완된 콘텐츠를 담은 책자를 발간, 1000여개 고등학교에 무료로 배부했다.

복잡한 대입전형, 혼란스러운 학생, 더 혼란스러운 학생선수

학원스포츠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기본 역량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학생선수의 대학 진학 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즉, 체육특기자로 진학을 꿈꾸는 학생선수가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혼란을 덜 겪고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5월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학생 85%, 학부모 87%, 교사 95%가 “대입전형이 매우 복잡하다.”라고 응답했다. 그도 그럴 것

이 2013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198개의 대입전형 개수는 3,000개가 넘는다. 심지어 같은 대학 같은 전공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입전형 개수가 다양한 경우도 있다. 결국, 그 혼란스러움은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사의 몫이다. 원하는 대학, 전공을 선택하여 진학하기 위해 학생은 ‘대입 공부’를 학부모와 교사는 ‘대입전형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경우, 혼란스러움은 더하다.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현장의 체육 교사 또는 감독 · 코치 또한 고민스럽다.

‘2014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책자는?

이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그간 대입전형요강 정보의 무지로 인해 대학 진학의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 고교 학생선수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부터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 책자를 발간했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물론 체육특기자로 특별전형으로 입학이 어려운 학생선수들을 위한 수시모집 일반전형을 담았다. 이 책자를 받아 본 일선 체육교사는 “상위 10% 이내 고교 엘리트 학생선수 이외의 학생선수들에게 맞춤형 대학 진학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입시 전략 수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책자의 기획 및 발간 첫해의 결과물인 ‘2013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에는 전국 70여개 대학의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및 60여개 대학의 체육특기자 대상 수시모집 일반전형이 담겼다. 올해 발간된 ‘2014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요강’은 콘텐츠를 보강했다. ▲전국 90여개 대학의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전국 90여개 대학의 체육특기자 대상 수시모집 일반전형을 담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구성을 선보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입전형요강 필수용어 해설 ▲대학별 대입전형요강 일람표 등을 수록하여 대입전형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학별 대입전형요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국에 운동부를 육성하는 모든 고등학교를 전수 조사하여 이 책자를 배부하여 학원 엘리트 스포츠 자원을 두텁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했다.

협의회는 이 책자가 전국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대학진학에 소중한 정보로 전달되어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한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 3주년 계기 체육계 원로 초청 간담회

2013년 6월 28일(금) 오후 5시, 서울 르네상스호텔서 체육계 원로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 3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 자리에는 한국체육학회 제14대 김창규 전 회장 등 역대 회장을 비롯한 체육계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협의회 장호성 회장(단국대 총장)과 강신욱 집행위원장(단국대 체육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 5인도 함께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0년 6월 8일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7월 26일 법인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으로 지난 3년간 대학축구, 대학농구, 대학배구에 홈앤드어웨이 리그를 도입하는 성과를 냈다. 현재는 대학스포츠 홈앤드어웨이 리그제 운영,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대학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1일에는 대학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해 ‘금전 스카우트 근절’, ‘지원서 1인 1매 관행 중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성명서’를 발표하며 건전한 대학스포츠 문화 형성의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다.

체계적인 리그 진행을 위한 사업으로는 대학농구·대학배구 경기 기록 시스템 개발과 기록실 운영이 소개되었다. 한편 그간 운영 과정에서 취약점으로 여겨졌던 대학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선 “대학스포츠 재정 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재정 수입원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대학 경기 단체 종목 중 인기

가 제일 높은 대학농구를 선정해 집중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고 동시에 추후 확대 유지 의사를 나타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 “실정에 맞는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제정해 운동부를 운영하는 각 대학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최근 합리적인 경영을 표방하며 운동부를 감축의사를 밝히고 있는 대학가의 움직임에 대해선 “국가 ‘대학 평가 기준’에 ‘대학 운동부 육성 부문’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겠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협의회의 업무 보고 후 체육계 원로들은 “대학스포츠는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의 산실이며, 특히 중·고등학교 학원스포츠의 정상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대학 총장들이 힘을 모으면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면서 “각 회원대학 총장들의 더욱 끈끈한 결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위상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데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 협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 지위가 격상되어야 한다.”면서 “법정 기구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정유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

2013년 2월 27일(수) 오전 11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범정관 5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2010년 6월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된 협의회는 그간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협의회 주요 과제를 심의·의결하고자 집행위원회를 운영해왔다. 회원대학의 체육위원(부·실)장, 대학경기연맹 회장, 스포츠전문기자 등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는 매달 정기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학스포츠의 현안을 두루 다뤄왔으나, 어느덧 설립 3년 차를 맞은 협의회 주요 의제가 확대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자 협의회 정관 제7장에 의거,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다.

경기지원위원회, 학사운영위원회, 재정·마케팅위원회, 상벌위원회의 총 4개 분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경

기지원위원회는 대학스포츠 리그 경기 일정과 경기 장소 조정·심의 등을 ▲학사운영위원회는 학생선수 학업성적 및 학습실태 진단·분석, 학생선수 학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심의 등을 ▲재정·마케팅위원회는 대학스포츠 브랜드 강화 전략 및 중·장기 마케팅 전략 수립·심의 등을 ▲상벌위원회는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및 우수 지도자 시상 기준 심사, 학생선수 및 경기지도자 일탈 행위 감시 및 제재 등을 담당한다.

이날 위촉된 분과위원회 위원 25명은 대학 체육위원(부·실)장, 체육 교수, 법률계 전문가, 체육계 언론인으로서, 대학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분과별 주요 현안에 대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논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이 분과위원회는 대학스포츠의 선진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협의회 주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차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분과위원회 개최

지난 4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있고 1달여 지난 시점에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각 분과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분과위원회가 앞으로 추진해나갈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지원위원회는 대학스포츠 리그 신규 종목 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학생선수 경기력 향상과 안전 보장을 위해 학생선수의 피지컬테스트 및 메디컬테스트 매뉴얼 마련, 선수트레이너(AT) 배치 검토, 경기장 안전 점검 기준표 마련 등을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프로구단의 학생선수 스카우트 및 드래프트 제도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개선점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학사운영위원회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 학생선수의 맞춤형 교육의 장단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학생선수의 학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체육특기자 대입특별전형 관련 사항과 학생선수 진로·취업 가이드북 관련 사항을 과제로 삼고 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사운영위원회의 의제는 필요에 따라 교육부와 공유 및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재정·마케팅위원회는 대학스포츠 마케팅 개념을 'KUSF 수익 사업'이라는 큰 범위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협의회·연맹·학교 간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기준 설정을 해 나갈 것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특히 현재 대학스포츠 리그를 시행 중인 대학축구·농구·배구를 합치면 70



~80개 대학이 된다는 점을 감안, 대학스포츠 통합 마케팅 차원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상별위원회에서는 협의회 상별위원회와 각 대학경기연맹 상별위원회의 업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생각을 같이하고, 대학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징계 조치는 각 대학경기연맹 상별위원회에 위임하고 이를 협의회 집행위원장에 보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단, 현재 협의회가 개발 중인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중 상별위원회 규정이 제정된 후 그에 대한 세칙을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집행위원회

위원장									
	강신욱 단국대체육위원장	이원규 고려대체육위원장	박장근 명지대체육부장	육동원 연세대체육위원장	허정훈 중앙대체육부장	최명웅 한국대학농구연맹회장	오한남 한국대학배구연맹회장	변석화 한국대학축구연맹회장	박현철 KBS스포츠국채부장

경기지원위원회

위원장							
	허정훈 교수 중앙대체육부장	김창국 교수 고려대사회체육학부	박태섭 교수 명지대체육부	심성섭 교수 숭실대생활체육학과장	이세웅 교수 연세대체육교육과	장재욱 교수 중앙대학학전문대학원	서완석 국장 국민일보 체육부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육동원 교수 연세대체육위원장	김상유 교수 명지대 체육학부	류호상 교수 영남대 체육학부	남기연 교수 단국대 법학대학	장달연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팩스	김완수 기자 KBS 스포츠국

재정·마케팅위원회

위원장						
	박장근 교수 명지대체육부장	김 종 교수 한양대체육대학장	박종진 교수 충북대체육부장	조광민 교수 연세대스포츠과학과	유주선 교수 강남대법학과	구병두 부장 스포츠토토

상별위원회

위원장						
	이원규 교수 고려대체육위원장	김민현 교수 중부대사회체육학과	박찬호 교수 동의대레저스포츠학과	심상신 교수 단국대체육교육과	윤태영 교수 이주대법학전대학원	김경호 부장 스포츠경향체육부

협의회 신규 임원 선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정관 제15조 4항에 의거 서면 총회와 서면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 2012년 6월, 제1기 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서면총회를 통해 제2기 임원을 선출한 바 있는 협의회는 2013년 3월, 일부 임원의 총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그 자리를 이어받을 새 임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이에 중앙대 이용구 총장이 새로이 협의회 부회장을 맡았으며, 건국대 송희영 총장, 경희대 김기연 총장, 관동대 이종서 총장이 협의회 이사를 맡게 되었다. 2013년 8월 현재, 협의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협의회 신규 임원

회 장	장호성(단국대 총장)
부회장	유병진(명지대 총장) 이용구(중앙대 총장) 임덕호(한양대 총장)
이 사	송희영(건국대 총장) 김기연(경기대 총장) 조인원(경희대 총장) 김병철(고려대 총장) 이종서(관동대 총장) 강태범(상명대 총장) 정갑영(연세대 총장) 김정행(웅진대 총장)
감 사	안재환(아주대 총장) 김재홍(서라벌대 총장)

협의회 제2대 김성태 사무국장 취임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제2대 김성태 신임 사무국장이 2013년 8월 1일 취임했다. 김성태 신임 사무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0여 년 넘게 근무한 전문 관료 출신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부장 등을 지냈다. 8월 1일 취임 직후 공식 업무에 돌입한 김 신임 사무국장은 “문체부에서 체육 관련 업무를 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KUSF BI 개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설립 3년 차를 맞아 ‘대학스포츠 브랜드 강화’를 도모하고자 새로운 BI를 개발했다.

‘KUSF BI’는 ‘대학스포츠의 공익성과 아마추어리즘’이라는 협의회 브랜드 콘셉트를 차별화된 이미지로 각인시켜 전략적인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존 협의회 FI(Federation Identity)와 연관성을 가지며 브랜드 개성을 담을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다. 협의회 영문명 Korea University Sports Federation의 첫머리 글자를 상징화하여 대학스포츠의 글로벌 의지를 지향하고, 굵은 글자체를 사용하여 대학스포츠의 강인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새로 개발한 ‘KUSF BI’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대학스포츠의 주 고객층인 대학생과 대학구성원과의 접점에서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

협회, ‘2013년 체육분야 인턴십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정세봄 인턴 선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체육인재육성재단이 주최한 ‘2013 체육분야 인턴십 지원 사업’의 ‘체육분야 인턴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우리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홍보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고자 인턴 공모를 실시했다. 총 35명의 열정있는 인재가 지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스포츠행정정영을 전공한 정세봄 인턴이 선발되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지며 지난 5월 1일 협의회 인턴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정세봄 인턴은 현재 ‘대학스포츠 홍보’ 업무를 맡아 ‘대학스포츠 FACEBOOK 등 SNS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KUSF 초대 사무국장으로서 3년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착

대학스포츠는 한국 스포츠의 젖줄로서 그 역할이 아주 컸다. 국내 프로스포츠의 흥행과 국외 스포츠의 불거리 증가로 그 모습은 왜소해졌다. 그러나 학원 엘리트스포츠를 대표하고 있어 그 책임은 막중하다. 문제는 이 대학스포츠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작금의 언론에서 대학스포츠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올 때마다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그것은 아마도 학원스포츠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일 것이다. 평생스포츠와 전문스포츠의 기본이 학원스포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학원스포츠가 허술해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난 2010년 6월, 전국에 운동부를 보유하고 있는 51개 대학의 총장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결성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대학스포츠 협의의 기구이다. 단순한 협의의 차원이 아니라 대학스포츠의 본질을 회복하여 스포츠의 선진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스포츠 복지 실현의 기반을 견고하게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외국 선진 사례를 잘 살펴보고 우리에게 체질적으로 맞는 부분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전인적 스포츠 인재로 거듭나도록 하는 일에 주목했다. 세계 모든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예외 없이 반드시 하고 있는 일이다.

이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에 필요한 일 중, 우선 대학스포츠 리그를 정부의 지원 아래 시행하였다. 그간 줄곧 운영해 왔던 토너먼트 환경에서는 팀의 우승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경기력, 안전이라는 아주 소중한 부분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었다. 리그제 시행 이후 크게 개선되었다. 지난 2월 발표된 '대학스포츠 리그제 실상과 발전모형'에서 '대학스포츠 리그제는 대학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9%였다. 그러나 현행 리그제는 지속해서 가다듬어져야 한다. 그 핵심은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며 전인적 스포츠 지도자가 되는 데 손색이 없도록 경기 일정의 공론화, 경기 기록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과 피드백, 경기 지도자의 새로운 리더십, 학교 당국의 치밀한 학사관리를 통한 학업성취도와 경기력 향상책의 개발과 유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하나 대학스포츠의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대학스포츠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과 애정이다. 종전에 대학스포츠를 언급할 때 보통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선수들과 재학생들 간 유대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에 재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였다. 학생선수들과 재학생들 간 친밀감 증대는 물론이고, 학생선수

들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치르며 개인과 팀의 경기력이 향상되었다. 경기 진행의 정확성, 경기 심판의 공정성 등이 부수적으로 생겨 대학스포츠의 공익성을 높이는 데도 한몫을 했다고 본다. 또한, 지금은 학원 엘리트스포츠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학스포츠 동아리도 애지중지 가꿔나가야 한다. 스포츠에 있어 종목별로 특출한 몇 사람을 선발하여 꾸려 나가는 체제는 그리 훌륭한 것이 못 된다. 종목별로 선수층이 엄청나게 두터워야 한다. 그중에서 아주 특출한 자가 대표로 나가는 구조가 진정한 선수수급 시스템이다. 대학스포츠의 정상화는 사실 이런 생태계를 여러 각도에서 하나하나 조성해 나가는 일이라고 본다.

대학스포츠를 통한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가능성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일에 매진하면서 대학스포츠의 공익적 이미지를 확립하여야 한다. 우선 대학스포츠가 지니고 있는 젊음, 순수함, 엘리트, 아마추어리즘,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학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유감없이 표출하여 인정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체육특기자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대학별로 확보되어야 하고, 실제 고등학교 체육특기자들이 본인의 역량과 능력에 맞는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 협의회에서는 2년째 '전국 대학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요강'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전국에 운동부를 보유한 1,000여 개 고등학교에 배부한 바 있다. 반응이 아주 좋았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수상자의 모범 사례를 대학스포츠 리그제에 참여하는 학생선수들에게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학생선수들이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주는 일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의 운영은 내실 있고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 해당 학생선수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8년도에는 매우 의미 있는 해로서 한국 학원스포츠의 염원인 '공부하며 운동하여 우수한 스포츠 인재'로 거듭나는 계기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선 대학스포츠가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탈바꿈할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꾸준히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초대 사무국장 **엄현희**

2013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하반기 주요 계획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연구” 결과 도출

지난해 9월, 우리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전반적 운영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규율하고자 각 대학에서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규정 제정을 위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개발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연구책임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재욱 교수) 연구진이 연구를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초 관련 세미나를 거쳐 9월 말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우리 협의회는 이 연구를 통해 각 대학의 대학스포츠 관련 규정을 종합 분석하고 외국 선진 사례를 더하여 우리나라 대학스포츠 실정에 맞는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중장기적으로 대학스포츠 정상화와 선진화를 이루는 데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013학년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및 우수 지도자 발굴·시상

우리 협의회는 2011년부터 대학축구·농구·배구 리그에 참여하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여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를 발굴, 시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학생선수의 전인적 발달에 공적이 큰 우수 지도자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올해에도 회원대학 소속으로 위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학생선수의 경우 전(全)학년 성적과 자기추천서, 총장추천서 등을 종합 심사하여 축구·농구·배구 종목별 최우수 1명, 우수 2명씩 총 9명을 선발하며, 지도

자의 경우 공적조서, 총장추천서 등을 종합 심사하여 축구·농구·배구 종목별 1명씩 총 3명을

선발한다. 이들에게는 협의회 회장 명의 표창패와 장학금 및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2월 구성된 협의회 분과 위원회 중 상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맡아 이 상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심사에 더욱 공을 들이고자 한다.



2013 대학경기지도자 정례 워크숍

우리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현장 책임자와 소통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대학경기지도자 정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도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이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간 3회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은 워크숍 주제를 정하고 발표자의 주제발표와 발표자와 참가자 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발표자와 참가자 간의 쌍방향 토론에 비중을 더 두어 대학스포츠의 현안과 현장 의견이 함께 중시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실질적인 워크숍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대학스포츠 통계자료집 제작

우리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현안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 연구, 조정을 통해 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임무를 맡아 대학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선진 대학스포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대학스포츠 시스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위한 대학스포츠 관련 통계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대학스포츠 관련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대학스포츠 관련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1단계로 전국 250여 개 대학의 운동부·학생선수 현황, 회원대학의 지도자 현황, 대학축구·농구·배구 리그 관련 현황, 대학별 대학스포츠 5대 운영 규정 보유 현황 등을 담은 1차 통계자료집을 제작했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학생선수 권익, 학습권, 경기력, 취업 등과 더불어 대학스포츠 관련 실태 등의 자료를 담은 2차 통계자료집 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현재 교육부 대입제도과의 ‘대학별 체육특기자 관련 현황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근거로 대학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전국 156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체육특기자 관련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2차 통계자료집에 반영하여 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난파 기념관, 경기남부테크노파크, 미국 LA 단국 글로벌영상콘텐츠 연구소 개소



장호성 단국대 총장은 지난 3월 13일 단국대 음악대학 난파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난파 기념관은 단국대에 소장 중인 많은 유물 중 홍난파로 알려진 난파 홍영후의 유품만을 따로 정리해 전시한 기념관으로 개관식에는 난파 선생의 후손들이 참석했다. 6월 14일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수원, 화성 등의 산업단지와 경기 남부의 대학 및 연구기관을 연계해 국가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단국대 내에 경기남부테크노파크를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수원시장, 오산시장 등 경기 남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7월 25일에는 전 세계 영화산업의 핵심이 몰려 있는 미국 LA에서 '단국 글로벌영상콘텐츠 연구소' 개소가 있었다. 단국대는 할리우드, 애너하임 등 인근 지역에 거대 영화사와 영화기술사 등이 밀집하여 영상 콘텐츠 연구에 최적지인 LA에 영상콘텐츠 연구소를 개소하여 관련 분야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FISU 국제조정위원으로 각종 국제행사 참가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스웨덴 우메오시에서 개최된 FISU Rectors' Forum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국제조정위원으로 참가했다. 이번 포럼의 주요 테마는 '대학과 지역 사회의 성장'으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스웨덴 우메오대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하여, 대학의 학장, 총장, 부총장 등 대학 지도자들에게 학계와 사회 전체에서 스포츠의 중요성을 토론하고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됐다. 이

기간 유병진 총장은 FISU 국제조정위원이자 차기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광주에서 이뤄질 유니버시아드 행사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유 총장은 이어 7월 2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각종 행사 및 위원 회의에 참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 대회에 19종목 309명이 출전하여 종합 4위의 좋은 성과를 얻었으며, 특히 남자 테니스의 명지대 임용규 학생이 지난 심천 대회에 이어 카잔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며 유병진 총장과 이 기쁨을 나누었다.

'스승의 날' 시구



이용구 중앙대 총장과 그룹 f(x)의 보컬로 활동 중인 중앙대 공연영상창작학부 루나가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30분에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 경기의 시구와 시타를 맡았다. 중앙대 관계자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직원과 학생 4,500명이 함께 두산 베어스 경기를 관전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제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두산 베어스(사장 김승영)은 15일을 '중앙대학교의 날'로 지정, 대학 구성원들을 초청해 단체 관람 및 응원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문 사회봉사단 '함께한대' 출범 1주년 기념 바자회 개최



임덕호 한양대 총장은 5월 15일 한양대 본관 앞에서 동문 사회봉사단 '함께한대'의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기부문화 확산과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기획됐다. 행사가 열린 15일은 개교 74주년 기념일이자 스승의 날이었던 만큼, 많은 유력인사들이 개회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영사에 나선 임덕호 총장은 “뜻깊은 행사에 귀중한 물품을 기증해 준 한양대 동문들과 여러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행사야말로 타 학교의 귀감이 될 만한 행사”라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함께한대’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대학 동문 사회봉사단으로 기업인, 법조인, 의료인, 언론인, 공무원, 연예인 등 각계 동문 600여 명이 속해 있다. 지난해 출범 후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대학교 제9대 김기연 총장 취임



김기연 경기대 총장
이 3월 26일 취임했다. 이날 경기대 수원 캠퍼스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총장은 “우리는 ‘경기대 발전’이라는 커다란 기치 아래 힘차게 뭉쳐야 한다.”

며 “아무리 풍부한 인적자원이 존재한다 해도 서로 반목해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모두가 화합하고 일치단결해 경기대를 명문 대학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한, “대학의 여러 곳에 군살이 박혀 있는 것을 걷어내야 한다.”며 “재원 확충을 위해 총동문회와 유기적 연대를 통한 기금 모금을 비롯해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유치와 유희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산학협력단의 강화 등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연 총장은 재학생 장학금으로 5천만 원을 기탁했고, 김연권 부총장 이하 본부처장, 신순철 신한은행 경기본부장 등 내·외빈들이 모두 1억 7천 700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전국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우승기 전달 받아

안재환 아주대 총장은 7월 15일 오전 총장실에서 이정호 축구부 감독과 축구부원들로부터 전국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우승기와 트로피를 전달받았다. 이 감독과 축구부 30여 명은 7월 9일 전남 영광 우승으로 막을 내린 전국 1, 2학년 대학축구대회 경과를 보고하고, 안재환 총장을 비롯한 각 처장으로부터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 안재환 총장은 “직접 결승전에 못 가서 아쉬웠지만 TV중계로 열심히 응원했다. 강호 전주대를 초반부터 앞서나가 편안하게 경기를 봤다.”며 “학교에 대한 자랑거리를 또 하나 만들어줘 고맙다. 앞으로 있을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편, 제9회 전국 1, 2학년 대학축구대회는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전남 영광에서 열렸으며, 아주대는 예선전을 전승으로 치른 뒤 16강에서 전주기전대, 8강에서 상지대, 4강에서 배재대를 각각 물리치고 결승에서 전주대를 4대 0으로 꺾으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서라벌대학교 ‘한국 승마산업의 활성화에 박차’



김재홍 서라벌대 총장은 문화관광의 중심지 경주에서 한국 승마산업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2013년 9월 중순 1차 승마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라벌대는 승마장 준공으로 승마 감습과 재활 승마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과정 개설을 통해 말 산업육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승마저변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또한, 승마가 고급스포츠가 아닌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경주시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레저·문화·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승마산업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실천할 계획이다.

UNWTO 탈렙 리파이 사무총장에게 명예박사학위 수여

김향자 경운대 총장은 2013년 6월 3일 경운대 벽강아트센터에서 경상북도지사, 구미시장, STEP재단 이사장, 경상북도관광협회장, 경상북도새마을회장 등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UNWTO(세계관광기구) 탈렙 리파이 사무총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을 가졌다. 탈렘 리파이 사무총장은 “한국의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경운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되어 그 영광이 매우 크고 소중하다.”며 학위

수여식 소감을 전했다. 김향자 총장은 “UNWTO 사무총장의 이번 명예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경운대의 우수인재들이 해외로 뿔어 나갈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UNWTO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 관광시장에 대한 지식과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 고용창출,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구이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55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이다.

제1회 선문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개최



황선조 선문대 총장은 7월 21일 제1회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를 선문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선문대 총장기는 전국 28개 단체 604명이 출전했

으며, 중복 출전 포함 1,117명이 출전하는 전국 메머드급 태권도 대회로 열리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선문대 무도경호학과 태권도 전공이 주관하였으며, 종목으로는 개인품새, 단체품새, 태권체조, 단체시범, 개인겨루기, 단체겨루기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특히 단체시범 시에는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갖춘 고등부 소속이 많이 참가하여 기량을 과시했다. 11시 30분부터 시작된 개회식에는 대회장인 황선조 총장을 비롯하여 건강보건의 이희찬 학장과 무도경호학과 소속 교수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부 인사로는 세계무도아카데미 김용호 총재를 비롯한 영국과 프랑스의 해외 태권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황 총장은 “태권도는 세계 205개국에서 전 세계인이 즐기는 무도 스포츠로 발전했고, 우리 대학에서 전국태권도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태권도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대한민국을 알리도록 노력하자.”라고 환영사를 하였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16대 회장 취임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취임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은 4월 26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2013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준영 총장은 이어 6월 27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년 임시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7월 2일부터 7일까지 독일총장협의회(HRK)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가 주관한 제2회 한-독 고등교육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대학의 국제화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ACE협의회, 대학 총장 세미나 참석



이철 울산대 총장은 6월 27일 낮 12시 30분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7회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협의회 이사회에 참석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으로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구상하고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6월 27일 오후 3시 경주 힐튼호텔에서 140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철 총장은 이 세미나에서 ‘고등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더 높이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학에 대한 획일적 평가 지양 등 6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해철 홍익대 총장은 지난 5월 3일 이은정 서울마포경찰서장과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류협약을 계기로 홍익대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교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서울마포경찰서는 ONE STOP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2005호

전화: 02-707-3767 팩스: 02-707-3766

www.kusf.or.kr